

대중소설 연구의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

조 명 기*

차 례

- | | |
|---------------------|----------------------|
| 1. 대중소설 연구의 의의 | 4. 한국 대중소설 연구의 방안 모색 |
| 2. 대중소설에 대한 시각의 문제점 | 5. 맺음말 |
| 3. 기존 연구에 대한 반성 | |

1. 대중소설 연구의 의의

적합성 여부나 진실성 여부를 떠나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나라에 상륙한 후, 그 맹렬한 기세를 등에 업고 대중문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혜를 입었던, 그에 대해 숨가쁜 비판을 퍼붓던 간에, 대중소설에 대한 현재 연구자들의 시각은 따뜻하기 그지없다. 그들은, 현실문제의 허위적 해결, 혹은 기만적 대중조작설의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시각을 귀족주의적·지나친 엄숙주의적 발상으로 낙인찍는데 서슴지 않고 있다.

대중이라는 존재에 대한 우리의 기존 시각이 1930년대 김기진의 입장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중소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바람직하다. 대중을, 지식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의 욕구를 흥미로운 설화 속에 담을 수 있는 건강한 인격체, 적어도 그렇게 하도

* 부산여대 강사

록 작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능동적인 인격체로 인식하는 것은, 인터넷이나 통신문학에 대한 인기가 엄청난 시대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우리라는 존재가 곧 대중이라는 존재이므로 대중을 폄하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불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라는 조련사가 자신의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민중을 시민 혹은 대중으로 변모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에 대한 기대감 혹은 신뢰감은 어쩌면 새로운 해방구를 찾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중을 새롭게 바라보기’는, 신자유주의 혹은 세계화의 물결을 탄 자본주의·물질주의에 끊임없이 패퇴 당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최소한의 건강이라도 지켜내려는 몸부림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중소설 연구는 과연 건강한가. 시각의 변화가 구체적 방법론으로 발전하였는가. 인식의 전환이라는 것도 그나마 남아 있던 ‘건강함’을 불모로 한 기회주의적 발상은 아닌가. 이 물음에 자유로운 태도를 보일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헌납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대중소설에 대한 연구동향을 시류적인 것으로 비판하거나 혹은 그런 동향을 당위적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무비판적 태도를 여기저기서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순응인 듯 보이는 경우라도 독서과정에서 지배 이데올로기의 불합리를 제시함으로써 그에 대한 저항의지를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결론 맺고 있는 최근 논문¹⁾이나, 소설은 무엇보다 재미있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다는 작가의 생각을 성실성으로 미화하는 평론²⁾은, 저항적 성향의 축제가 일상화·자본화되었음을 확인한 후에야 안심하고 그 축제에 참가하는 우리의 이중적 태도를, 그리고 왜 지금 대중소설을 연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우리가 얼마나 저급한 상태에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들이 대중소설에서 몰아내고자 했던 ‘허위적 해결’이란 성격을 그들 자신의 글은 고스란히 품고 있는 것이다. ‘주장만 대중문학론을 내세울 뿐 그들의 형태는 도리어 귀족주의적 글쓰기를 확대·재생산하는 내적 모순’³⁾을 범하고 있다는 지적은 그래서 의미 심장하다.

1) 김지영, 「정비석 초기연애소설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99, 71쪽.

2) 이은자, 「연애소설」, 김중현외, 『대중문학의 이해』(창예원, 1999), 101쪽.

3) 황순재, 『말전범의 비평』(토마토, 1998), 83쪽.

대중에 대한 이중적 태도 못지 않게 우리를 어이없게 만드는 것은 대중소설 연구의 비객관성이다. 즉, 현재 연구자들은 대중소설 연구를 대중소설의 무비판적 긍정으로 오인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순수소설 혹은 본격소설이라고 해서 모두 격조 높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듯, 대중소설이라고 해서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태도는 지극히 당연하기까지 하다. 그것은 동시에 대중소설에도 비판의 대상이나 요소가 있다는 것도 증명한다. 대중소설 연구가 시대의 요청이라 하더라도 대중소설에 관한 여러 특집이나 단행본이 보여주는 무비판적이고 무한한 긍정의 자세는 지식인의 기회주의적 속성만을 드러낼 뿐이다. 대중소설 연구는 대중소설에 대한 옹호와 동의어가 아니다. 대중소설을 연구한다면 그에 대한 논문이나 평론도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어느 토론자의 질문은, 대중소설에 대한 현재 우리의 시각을 정직하게 대변한다. 대중소설을 연구해야 하는 배경에는 여전히 지식인의 시혜적 자세와 문화 권력적 술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대중에 대한 시각 변화의 당위성만을 되뇌이는 현재의 연구 동향은, 그 정신의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법론과 궁극적 목적의식의 부재로 인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거나 알튀세르 혹은 에코의 이론을 소개하거나 우리 문학에 적용시켜보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 대중소설 연구의 현실이다. 대중소설은 대중의 욕망과 사회적 권력이 충돌하는 장이라는 시각을 받아들여 그것을 한국의 대중소설에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대의 사회적 권력과 대중의 욕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각각의 대중소설에 나타나는 그것들이 어떤 합의를 확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중소설 연구는 이런 물음을 던지지 않는다. 이것은, 인근 학문의 연구 성과가 대중소설 연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스스로 그런 물음을 피해가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는 데 근본원인이 있다.

소설 특히 대중소설이 자본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⁴⁾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은 서구의 그것과 분명 다르므로 한국 대중소설의 역사나 기능, 소설관 등은 서구의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

4) 한국문화학회·현대문학이론학회 공동 주최 '하계 전국학술발표대회', 1999. 7. 2.

5) 아놀드 하우저(황지우 역), 『예술사의 철학』(돌베개, 1983), 331-332쪽 참조.

해야 한다. 적어도 1950년대~1980년대 증반은 국가주도형 자본주의와 억압적인 정치형태로 인해, 서구의 대중문화론 혹은 대중문학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요소를 한국 대중소설은 분명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밝히는 것은 한국 연구자의 몫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고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연구성과물을 검토한 후 한국의 대중소설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론의 일단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몇 년 사이에 1930년대를 중심으로 1960·70년대 대중소설에 대한 논의가 석·박사 논문과 단행본으로 나오고 있는데, 본고는 이 중 몇몇 주요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 대중소설 연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대중소설에 대한 기존 시각의 문제점

우선 문제는, 대중소설이 현실도피의 방편이라는 아편계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현실의 억압기제에서 해방하고자 하는 대중의 욕구를 반영하는가라는, 대중소설의 이태올로지적 기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중소설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위 두 가지로 대별되어 있으며, 이 구분에서 어떤 연구자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에 현재 한국 대중소설 연구는 근본 한계를 안고 있다. 우리 연구자들은 대중소설에 대한 인식의 변화 즉, 프랑크푸르트학파로 대변되는 맑스주의적 세계관·귀족주의적 시각에서 문화주의로의 변화를 곧 역사의 도도한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중소설에 대한 과거의 논의가 오로지 대중소설 폄하라는 측면에서만 이루어졌듯이, 자본주의 발전 과정과 맞물려 이루어지는 현재의 대중소설 논의는 그 정당성에 대한 의심도 없이 그 자체로 선한 것, 혹은 민주적인 것으로 치장되고 있는 것이다. 욕망의 대리충족은 대중을 실제 현실에서 도피하도록 만드는가, 아니면 대중으로 하여금 억눌린 욕구를 분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가. 이 두 인식은 그 시간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존하고 있으며, 그 외 여타 의견은 촌립의 공간을 전혀 지니고 있지 못하다. 대중소설은 여러 욕망·문화의 투쟁의 장⁶⁾이라는 그람시의 말을 인용하면서도, 실

6) 안토니오 그람시(로마 그람시 연구소 편, 조형준 옮김), 『그람시와 함께 읽는 문

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대중소설 논의는 지배 이데올로기와 저항 이데올로기의 관계에 주목하기보다는 의식적으로 어느 한 편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피상적으로 받아들인 대중소설론은 음험하게도, 문화권력에 대한 욕망과 얽히 제로섬 게임을 위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부당하게 폄하해 온 과거의 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억지스럽게 대중소설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⁷⁾, 대중소설에 대한 논의가 이 두 축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푸코가 정의내린 의미에서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현재의 대중소설 논의가 지닌 또 다른 한계는 대중문화론으로 대중소설을 재단하는 데 있다. 대중문화에 대한 논의는, 이식문화론과는 무관하게, 그러나 근대라는 화두와는 어느 정도 밀접한 거리에서 시작되었고, 대중소설에 대한 논의 또한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흔히 지적하는 현실 맑시즘의 붕괴·위해, 세계화, 후기 자본주의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수평적 경계는 허물어지고 수직적 질서 또한 역전되고 있으며, 상호 텍스트성은 현실이 되었다. 이런 흐름에 편승하여 대중소설은 소설의 양식을 빌린 대중문화의 일부로 취급되고 있다. 물론, 기존의 연구가 대중문화의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왔고, 그런 측면에서는 대중소설 역시 대중문화의 범주에 묶여버릴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어 이러한 태도는 일면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대중소설이 대중문화의 일부라 해도 대중소설은 대중문화의 여타 하위장르가 갖고 있지 않은 특성을 담고 있을 터이다. 한국의 대중소설을 설명하는데는 나선형의 구조⁸⁾라든지, 도식적인 구성 등으로 충분하다는 듯한 태도는, 한 텍스트의 내재적인 의미 구조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국의 대중소설사를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 더구나 1930년대 대중소설이 엄청나게 생산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환기한다면, 소위 대중문화의 범람현상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한국의 대중소설은 전성기를 누렸고, 그에 따라 한국의 대중소설은 내재적인 발전과정을 거쳐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화』(새물결, 1992), 67쪽.

7) 권선아, 「1930년대 대중소설의 양상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94, 1-3쪽 참조.

8) 추은주,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97, 44-52쪽 참조.

따라서 문화이론을 규격화된 시각으로 정리하여 그것으로 모든 시대의 대중소설을 재단한다면, 본격소설보다 훨씬 더 당대의 기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대중소설의 특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세계관·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볼 때도, 지배 이데올로기와 저항 이데올로기의 충돌은 각 시대마다 상이한 서사구조로 표현되며 각 이데올로기의 구성요소 또한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한국의 현대사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돌변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대중소설에 나타나는 지배 이데올로기나 저항 이데올로기 또한 전 시대와는 상이한 전략구조로 형상화된다. 형상화가 인물, 배경, 서사구조 등 소설의 모든 구성 요소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때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중소설의 내재적 분석은 거의 필연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중소설 논의가 거의 천편일률적인 현상은, 한국의 대중소설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문학적 국수주의에 빠져 문학 외의 일체를 거부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문학행위를 문화행위의 일부로만 파악하는 것은 대중소설의 근본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선부른 태도이다.

현재의 대중소설론은 대중이라는 용어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대중문화의 이론틀을 그대로 이식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이론틀 혹은 시각이 대중소설에서 소설적 특성을 무화시켜 버리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대중소설은 영화나 대중음악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산출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이론틀은, 전혀 대립 개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도,⁹⁾ 여전히 대중소설과는 다른 차원에 있음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본격소설은 대중소설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대중문화와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도 제시하지 못한다. 현재의 대중소설론은, 대중소설은 본격·순수소설의 구성과 인물을 유형화·단순화시켜 차용할 뿐이라는 귀족주의적 시각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에, 대중소설과 소위 고급·본격소설의 관계는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방기되어 있다. 대중문화의 분석틀이 대중소설 분석틀로 그대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면, 본격문화 혹은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라는 이분법만으로 현대의 예술문화를 설명해야만 할 것이

9) 조성면 편자, 『한국 근대대중소설 비평론』(태학사, 1997), 24-25쪽 참조.

다. 장르가 독자의 태도를 선형적으로 결정짓는 것이라면,¹⁰⁾ 장르에 대한 성찰은 본격소설과 대중소설의 관계에서도, 소설과 여타 장르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대중소설은 당대의 사회적·역사적 맥락을 통해 이해해야만 한다. 그것은 곧 그 시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대중소설에 대한 관심이 유럽이나 미국의 연구 경향의 자장에서 자유롭지 못하듯, 그 연구방법 또한 유럽이나 미국의 연구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중소설이 그 시대 상황의 산물임을 뚜렷이 자각하지 못한 결과다. 소설 특히, 대중소설은 자본주의 발전의 산물이며,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 과정은 유럽이나 미국의 그것과 엄연히 다르며 민주화의 과정 또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한국 대중소설 연구의 방향을 마련하는데 기본 단서를 제공해준다. 한국의 근대화 역사가 주체적인 발전사를 보여주지 못하고 외부의 영향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점, 그에 따라 사유방식에 있어 통시적인 것이 공존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유럽이나 미국의 대중소설과 한국의 현대 대중소설은 그 연구방식에 있어 차이를 두어야만 한다. 한국의 대중소설에 대한 접근은, 한국의 특수한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을 검토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3. 기존 연구에 대한 반성

대중의 행동양식이 복종과 저항을 기본틀로 가지고 있듯이 대중문화 역시 복종과 저항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¹¹⁾는 관점은 최근에 나온 논문들의 공통된 관점으로 이들 연구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알튀세르나 그람시 등에서 영향을 받은 이같은 태도는, 그러나 수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한국 대중소설 적용의 과정에서 필연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10) 이정옥, 『1930년대 한국 대중소설의 이해』(국학자료원, 2000), 79쪽.

11) 김동윤, 『1950年代 新聞小說 研究』, 제주대 박사논문, 1999, 9쪽.

일제 강점기의 애정 갈등형 대중소설은 주로 개인의 애정 욕구보다는 사회적 요구로 귀결되는 작품이 많았다. 이는 당대가 식민지적 근대라는 상황과 사회·문화적 전근대성 때문이었다. (중략) 당대인들이 자유주의 혹은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적,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였고, 자본주의 역시 식민화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략) 따라서 애정갈등형 대중소설은 개인의 욕망보다는 타인이나 민족에 헌신하는 사랑이 진정한 애정이라고 생각하였던 당대인의 지배이념을 반영한 작품임을 알 수 있었다.¹²⁾

여성 독자들의 경우에는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즐기려 했던 <오선영>을 내심 부러워했을 가능성이 있다. “작가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결국 가정의 혼란과 사회의 타락상을 부추길 뿐이라는 점을 암시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렷이 확인”함으로써 즐거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대리인격인 <오선영>이 어쩔 수 없이 가정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현실에 눈물을 공유했을 법하다.¹³⁾

대부분의 대중소설 연구자는, 대중소설은 현실세계의 혼돈, 불확실성, 모호함, 억압 등을 선악이분법으로 단순화하고 있다¹⁴⁾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위 인용문의 논지 전개와는 모순적이다. 대중소설이 대중의 욕망을 반영하면서 지배 이데올로기와 저항 이데올로기가 투쟁하는 장이라면, 대중의 욕망은 저항 이데올로기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럴 경우, 지배 이데올로기는 약으로 저항 이데올로기는 선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도식이 역전된다면, 대중의 욕망은 지배 이데올로기와 동일한 것이 되고, 저항 이데올로기는 존립 근거가 부정될 것이다. 첫번째 인용문에서 보듯, 당대인의 지배이념이 개인의 욕망보다는 타인이나 민족에 헌신하는 사랑이 진정한 애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있었다면, 타인이나 민족에 헌신하는 사랑은 선(善)이면서 동시에 저항 이데올로기가 되고, 개인의 욕망은 지배 이데올로기가 된다. 대중소설에 있어 ‘가상의 해결은 사회의 윤리에 관한 지배적 동의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며, 따라서 이념과 갈등하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지배이념을 합리화하려 하기 때문에 대중소설은 텍스트의 파탄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¹⁵⁾면, 개인

12) 이미향, 「일제 강점기 애정갈등형 대중소설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1998, 109-111쪽.

13) 김동운, 앞의 논문, 159쪽.

14) 이미향, 앞의 논문, 15-16쪽.

15) 이미향, 앞의 논문, 15-16쪽.

의 욕망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지배이념'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작품 내에서 처벌받는 것은 개인의 욕망이며, 합리화하려 하는 이데올로기는 타인이나 민족에 헌신한 사랑이다. 결국, 어느 것이 개인의 욕망을 반영한 것인지 어느 것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저항 이데올로기와 지배 이데올로기의 구분 자체는 윤리적 판단을 담지하고 있지 않지만, 선·악 개념은 윤리적 판단 그 자체이다. 위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논문은 윤리적 판단과 탈윤리적 판단을 연결하는 과정, 그리고 지배이념(지배 이데올로기)의 개념 정립에서 착오를 범하고 있다.

『1950年代 新聞小說 研究』는, 『자유부인』이 여성문제를 다룰 때 타협적 사회인식을 보여준다면, '신문소설은 순문에 장편과는 달리 독자와 타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성 윤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그(정비석-인용자 주)의 지론이 『자유부인』 창작에도 적용되었다'¹⁶⁾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대중들의 행동양식이 복종과 저항을 기본틀로 가지고 있듯이 대중문화 역시 복종과 저항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대중문화로서의 신문소설을 분석한다'¹⁷⁾는 그의 기본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다. '복종과 저항'의 주체는 대중이고, 그 대상은 지배 이데올로기임은 분명하다. 즉, 복종·저항·타협의 대상은 지배 이데올로기이지 대중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이다. '독자와 타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성 윤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태도는, 독자 즉 대중은 기성 윤리에 저항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성 윤리를 존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대의 대중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존중하면서 타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때, 그 대중은 남성보다는 여성일 것이다. 그렇다면 위 인용문에서 말하는 '그들의 사회적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렷이 확인함으로써' 느꼈을 즐거움의 정체는 무엇인가. 당대의 여성은 기성 윤리 즉,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존중하고 있다는 설명과, 그들의 사회적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오선영이 뛰어넘었다는 이유로 오선영을 내심 부러워했을 것이라 추측은 모순이다.¹⁸⁾ 또한 이 논문은 '1950년대 신문소설이 남녀평등에 대한 문제

16) 김동운, 앞의 논문, 38쪽.

17) 김동운, 앞의 논문, 9쪽.

18) 이런 면에서 "『자유부인』의 작가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결국 가정의 혼란과

를 제기하면서도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쉽게 타협하고 마는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틀을 깨트리지 못한 한계'이며 결국 '대중문학의 한계'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설명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응 내용이 텍스트의 질적 수준을 결정한다는 전제를 안고 있으며, 그 전제는 이분법적 사고의 산물이다. 대중소설은 지배 이데올로기와 저항 이데올로기의 투쟁에서 어느 편이 승리하는가를 보여주는 소설이 아니다. 그리고 텍스트 내 투쟁의 결과에 따라 그 소설을 대중소설로 볼 것인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대중소설은 지배 이데올로기와 저항 이데올로기의 투쟁 그 자체이다.

4. 한국 대중소설 연구의 방안 모색

한국의 현대사는 왜곡된 자본주의 이식과정과 민주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적어도 1960·70년대까지는 산업자본보다 국가권력이 한국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지배적인 요인이 되고 있었다. 한국 대중소설 연구는 여기서 시작되어야 한다. 민중문학과 대중문학의 변별에 대한 논란이 있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의 대중문학사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전개 도상과 궤를 같이 한다면, 대중문학에 대한 서구의 이론은 한국의 대중문학을 설명하는데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국가 권력의 지배 이데올로기, 그리고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권력 문제를 포함하여야 한국의 대중문학은 그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또한, 통속적인 것과 진지한 것은 항상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들은 서로에 대해 배타적으로 두 부류의 인간형에 나뉘어 속해 있

사회의 타락상을 부추길 뿐이라는 점을 암시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진출을 봉쇄하려 했으나, 여성 독자들은 거꾸로 이 소설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렷이 확인하게 됨으로써 무한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자유부인』은 대중문학으로서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다"는 김창식의 설명은 설득력을 지닌다.(김창식, 『대중문학을 넘어서』(청동거울, 2000), 234-235쪽)

는 것이 아니다¹⁹⁾. 즉, 지배계급이나 피지배계급 모두 통속성과 진지성을 가지고 있어 그 누구도 이 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적극적으로 당연한 듯 보이는 이 진술은 대중소설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푸코의 의미에서, 이데올로기의 편제가 치밀하고 일상화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 지배 이데올로기는 생경한 모습 그대로 나타나게 되며, 그에 대한 가시적인 저항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한국의 현대사 적어도 1950년대~1970년대의 상황은 국가주도형 산업 성장과 상명하달식 문화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때의 대중소설은 대중의 억압된 욕구를 분출하고 확인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상적인 상식'의 수준에서 이데올로기적 준거물들은 가장 확고하게 침전되고 가장 효과적으로 숨겨지게 되지만,²⁰⁾ 1950년대~1970년대 한국은 이데올로기적 준거물을 숨길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장려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왜곡된 형태로 이식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미성숙에 기인한 것이었다. 대중문화를 비판할 때 흔히 사용하는 '대중의 취향에 영합' 혹은 '허위적 해결'은 1950년대~1970년대 한국의 대중소설을 설명하는데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당대 상황이 저항 이데올로기가 지배 이데올로기의 일부로 포섭되어 일상적이고 관계적인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이원적인 대립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데 원인이 있다. 국가권력이 강요한 이데올로기적 준거물은 강조와 침묵의 양상으로 전개된다. 국가권력의 이데올로기는 강조되고 적극적으로 노출되는데 반해, 피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는 숨겨지며 침묵당하게 된다. 이 강조와 침묵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국가권력을 보강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한다.²¹⁾

한국의 대중소설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국가권력이 강요하는 강조와 침묵에 순종하지 않는다. 통속적인 것 속에서는 억압된 요인이 억압의 흔적을 지닌 채 다시 나타나는데,²²⁾ 한국의 대중소설은 강조와 침묵을 강요하는 모습

19) 장영우, 「대중소설의 유형과 그 특징」,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엮음, 『대중문학과 대중문화』, (아세아문화사, 2000), 53-59쪽.

20) 덕 핸디지(이동연 역), 『하위문화』(현실문화연구, 1998), 29쪽.

21) 알랑 스윙우드(김영수 옮김), 『대중문화의 신화』(현암사, 1984), 173쪽 참조.

22) T.W.아도르노(홍승용 역), 『미학이론』(문학과지성사, 1993), 371쪽.

그 자체, 그리고 강요받는 침묵과 강조의 내용에 대한 흔적을 문제삼는다. 그것은 대중의 저항 이데올로기가 후기 산업사회보다 훨씬 더 가시적이고 대립적인 형태로 발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의 대중소설이 1990년대 이후의 대중소설과 구별되는 것은 이 지점에서이다.

1950년대~1970년대 한국의 대중소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강조와 침묵, 필자의 용어로는, 노출과 은폐의 양상 그리고 노출과 은폐의 요소를 살펴야 한다. 그것은 대중소설을, 노출과 은폐를 선형적인 것으로 결정짓고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와, 가시적인 지배 이데올로기 덕분에 집합의 형태로 형성될 수 있었던 저항 이데올로기가 충돌하고 투쟁하는 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줄 것이다. 노출과 은폐의 요소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모두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임에도, 지배권력은 노출해야 할 요소와 은폐해야 할 요소를 주체적으로 재단하고 있으며 이것을 상식으로 통용시킨다. 이 시기 한국의 대중소설은 이 상식에 저항한다. 노출과 은폐의 내용은, 인간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이므로 그것을 삭제하거나 제거할 수는 없다. 지배계급은 엄연히 존재하는 수많은 요소 중 노출시켜야 하는 것과 은폐해야 하는 것의 항목을 구분하고, 그 구분이 제대로 준수되는지만을 문제 삼는다. 대중소설은 이 노출과 은폐의 구분에 저항한다.

1954년 서울신문에 연재된 『자유부인』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국가권력이 강조하는 것만을 다루지 않고, 은폐하고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내보인다.²³⁾ 남성 인물과 여성 인물은 모두 육체성과 도덕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지만,²⁴⁾ 남성 인물은 도덕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자신의 육체성은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 반면, 여성 인물은 도덕성을 드러내는 데는 실패하고 있으며 육체성을 길 위에서 과장하여 드러내고 있다. 텍스트의 결말은 자신의 육체성을 철저히 숨긴 남성의 승리로 귀결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대결구도가 아니라 육체에 대한 관심은 숨겨져야 한다는 암시가 이 소

23) 이에 대해서는 조명기, 『『자유부인』 연구』, 『우암어문논집』 8집, 부산외국어대 국어국문학과, 1997 를 참조할 것.

24) 여성 인물이 도덕성을 지니고 있었음은, 위에서 인용한 김동운의 논문 일부에서도 잘 드러난다.

설의 결말을 장식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육체성의 침묵과, 한국적인 정신적 요소·도덕성의 강조를 이 소설은 보여준다. 강조해야 하고 침묵해야 하는 것의 분별은 이미 사회에서 선형적인 형태로 결정되어 있으며 그에 호응하는 자세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은, 강조와 침묵의 구도 혹은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을 보여주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강조해야 할 사항과 침묵해야 할 사항 모두로 두 인물의 성격을 규정하여, 상식 혹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식과 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억압은, 사실상 지배권력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배계급은 노출과 은폐만을 문계 삼고 있는 것이다.

대중소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나아가 노출과 은폐의 구조, 노출과 은폐의 내용, 그에 대한 대응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작업은, 대중소설이 지배 이데올로기 발현 형태와 저항 이데올로기 형성 양상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또한, 1980년대 후반 혹은 19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돌변해버린 시대상황에 대중소설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타당한가를 살펴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1) 「지나구 보니까 행세깨나 한다는 축들이 뒷구석으로 더하더라니까요. 이놈의 세상 까뒤집어 보면 웃어치워야 할는지, 울어야 할는지, 이 길로 들어서 보니까 세상에서 버젓하게 행세하는 남자치고, 안 그런 남자 절반 없는 것 같습니다.」 / (중략) 전 장관, 전 차관, 전 국영기업체 사장, 저 무엇무엇, 세상에 이름깨나 나고 행세하는 자, 낮에 공적인 자리에서는 무슨 소리 하는지 안 가 보았으니 알 수는 없지만, 밤에 술 치먹으면서 노는 꼴을 보면 한심하더라는 것이다.²⁵⁾

2) “배짱없이 양심과 사리와 도리만 찾는 사람이면 이 세상 살아가기는 틀린 사람이었다. / 양심이요 사리고 의리고 도리고, 이런 소리를 게걸스럽게 지껄이는 사람이란 버스나 전차간에서 까만 가죽 가방 들고 전도하는 사람 아니면, 대개는 당하고 난 사람이다.”²⁶⁾

3) 나이롱 이줄마는 돌아서며 그 여편네의 말버릇대로 중얼거렸다. “미친 것들, 그게 뭐 그리 대단타고 자랑발광들이야.” / 그러나 영자의 그 독창적

25) 이호철, 『서울은 만원이다』(동서문화사, 1987), 247쪽.

26) 이호철, 앞의 책, 306쪽.

인 의수가 대단치 않았던 것만은 아니었다. 당장 그날 밤부터 영자는 거침 없이 골목길로 진출할 수 있었고, 그 회한한 나무 팔뚝의 힘으로 눈먼 고기들을 낚아 올리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²⁷⁾

4) 춘자는 내게 아주 당연한 목소리로 "아니, 뭘 구경만 하고 서 있는 거야요."라고 힐책한 다음,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며 소리쳤다. (중략) "어디긴 어디야, 오팔팔이지," 구경꾼들 틈에서 어떤 되바라진 창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 "맛다 맞아. 창녀들의 창녀들에 의한 창녀들을 위한 오팔팔공화국이 아니가." (중략) 둘러 서 있는 계집들이 마치 운동경기라도 응원하듯 제 각기 한 마디씩 했다.²⁸⁾

『서울은 만원이다』는 1966년에, 『영자의 전성시대』는 1973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이 두 작품은 『자유부인』과는 또 다른 노출-은폐 양상을 보이며, 그에 대한 대응의 전략도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1)은 『서울은 만원이다』의 노출-은폐 양상을 대변한다. 『자유부인』에서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모두 육체성과 도덕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육체성은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지배계급의 육체성을 노출시켜 지배계급에 대한 불신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서울은 만원이다』는, 지배계급에 대한 저항의 면에서 『자유부인』보다 더 적극적이다. 지배계급의 육체성 추구에 대해 '한심하다'라는 가시적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는 육체성의 은폐라는 과거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대중에게 내면화·주체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육체성은 이제 더 이상 은폐해야 할 것이 아니며, 도덕성 또한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할 요소가 아니다. 지배계급은 정의·양심을 강조의 덕목에서 제외시키고, 근성·권모술수를 노출해야 할 덕목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은폐해야 하는 것과 노출해야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산업화·근대화의 논리에 의해 재정립된 것이다. 2)는 이같은 변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심', '뒷구석으로 더하'다는 부정적 판단은 피지배계층의 몫일 뿐, 그런 가치 규범이 지배계층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지배계층의 이런 비난은 산업화·근대화의 논리를 내밀하게 체득하지 못한, 그래서 시대 착오적인 발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지배계급은

27) 조선작, 『영자의 전성시대』, 『조선작 문학선』1 (일선출판사, 1987), 218쪽.

28) 조선작, 위의 책, 221쪽.

왜곡된 자본주의·산업화의 논리를 유포하면서 과거의 노출-은폐 구도는 폐기한다.

지배계층에 대한 피지배계층에 대한 저항은 『자유부인』에서보다 적극적으로 다.29) 더구나, 『자유부인』에서는 지배계층의 불합리한 모습 즉, 숨겨야 할 육체성의 노출을 많지 않은 분량으로 제시한 것에 그친 반면, 『서울은 만원이다』는 지배계층의 노출-은폐 구도를 지시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지배계층은 근대화·산업화의 논리와 그 근거에 무관심하다. 왜곡된 근대화·산업화와 거의 유일하게 관련되어 있는 한일회담에 대한 질녀의 태도에서 볼 수 있듯, 피지배 계급의 비판은 본질적인 문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표피적인 가십거리로 끝나고 있으며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영자의 전성시대』에 와서 노출-은폐의 양상은 또 다시 바뀐다. 영자는 경제발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버스 차장으로 일하다가 한쪽 팔을 잃게 되고 그 후, 창녀 생활을 하게 된다. ‘나’는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으로 훈장을 받지만, 훈장은 취직자리를 약속해주지 못하기에 목욕탕 때밀이로 일하고 있다. ‘나’와 영자는, 최하층민으로 부의 축적으로 도모하지만 성공적으로 자본주의에 편승하지 못한 인물이다. 이들은 목욕탕에서 그리고 밤에 활동하는 ‘어둠’의 인물이며, 동시에 국가권력에 의해 감추어야 할 인물로 규정된다. 은폐되어야 할 요소는, 육체성이나 양심같은 인간의 어느 한 요소가 아니라 자본주의에 계대로 편입하지 못한 인간 그 자체가 된다. 국가권력은 산업화·근대화의 결실을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그에 반해 폭력적인 산업화의 결함을 대변하는 인간은 감추어야 할 요소로 규정한다. 월남전 파병, 비인간적인 노동 등으로 이루어진 경제 발전은 황금빛이어야 하며, 그것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영자는 돈을 모으기 위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쪽 팔이 없는 것을 감추어야만 한다. 산업화의 병폐·결함을 감추는데는 주위 사람이 비웃을 정도로 허술한 나무팔뚝으로도 충분하다. 황금빛에 대한 강조는 나무팔뚝 하나라도 쉽게 허물어지는 허술한 것이다.

29) “질녀 자기는 물론이러니와 남동포나 미경이나 모두 천배 백배 선남선녀에 속하는 편이었다.”(289쪽)

4)에서 볼 수 있듯 피지배계급의 저항은 집단적이다. 한 사내가 영자의 의수를 발견하고는 영자를 할난하자 영자는 그와 맞싸운다. 이 때 춘자는 다른 창녀들에게 집단 연대의식을 붙여넣는다. 연대의식 고조방식은 국가권력의 말을 패러디하는 것이다. 피지배집단은 힘있는 국가권력의 발언을 패러디하여 국가권력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의도된 저항 집단을 형성한다. 『서울은 만원이다』의 본편화되고 일시적인 비판은, 『영자의 전성시대』에 와서는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저항으로 변모한다. 그것은 산업화·근대화의 병폐가 표면화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집단화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도된 저항집단은 지배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놓은 어둠의 깊이를 집단적으로 체험한다. 국가권력은 창녀라는 집단 전부를 숨겨야만 할 것으로 규정하고, '완전히 소탕시킬 계획'을 세운다. 작가는 '마치 우리들 중대가 평정지역의 베프콩 잔비들을 깨끗이 소탕했듯이 소탕시킬 계획이라는 것이다'라고 묘사함으로써 집단 연대감을 적·아군의 대립으로 확대시킨다. 국가권력은 창녀를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불평분자 집단으로 규정하여 완전히 숨기고자 하며, 작가는 이를 베트남전과 비교함으로써 일반독자까지 창녀집단의 한 축으로 포함시키려 한다.

대중소설의 구체적 텍스트들은 시대에 따라 내용이 변화하는 문화적 형식과 실천들로 구성된다.³⁰⁾ 각각의 시대는 그 전후의 시대와는 다른 사회, 경제적 상황을 지니며, 따라서 각각의 시대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독자적 형식과 내용의 대중소설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대중소설 연구 또한 시대적 추이 양상에 관심을 집중할 때,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저항 이데올로기의 내용과, 두 이데올로기가 투쟁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대중소설은 지배계급의 노출-은폐 전략과 그에 대한 저항 이데올로기의 충돌 양상 그리고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30) 토니 베넷, 『대중성과 대중문화의 정치학』, 박명진 외 편역, 『문화, 일상, 대중: 문화에 관한 8개의 탐구』(한나래, 1996), 267쪽 참조.

5. 맺음말

대중소설 연구는 대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대중에 대한 이해가 대중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듯, 대중소설 연구가 대중소설 옹호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대중소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중문화 연구가 대중소설 연구의 이론틀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중소설 연구를 위한 분석틀로 기능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 혹은 대중문화에 대한 시각의 변화만을 강조하는 대부분의 연구서는, 대중소설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대중 혹은 대중문화에 대한 시각을 연구한 것이다. 더구나, 그 시각의 변화가 한국의 역사발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한, 그것은 우리 상황에 적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1950년대~1970년대 한국의 역사는 한국전쟁과 남북 이데올로기의 첨예한 대립, 왜곡된 자본주의 이식과정과 억압적 정치형태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본고는 이 시기 한국 대중소설의 특징으로 지배 이데올로기의 노출-은폐 전략과 그에 대한 저항을 든다. 지배계급이 자신의 모순을 숨긴 채 지배 이데올로기를 선전·강화해가는 전략은 변동이 극심했던 이 시기의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소위 적지 않은 순수·본격소설이 몸을 낮추거나 몸을 비껴갈 때 몇몇 대중소설은 지배계급의 노출-은폐 전략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지배계급의 노출-은폐의 전략을 생경한 모습 그대로 제시하거나 역전 시킴으로써 지배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허위적이며 폭력적인지를 보여준다. 1950년대~1970년대 한국 대중소설은 지배계급의 노출-은폐 전략, 나아가 지배 이데올로기 내면화 전략과 그에 대한 피지배계층의 저항 이데올로기 표출 전략이 시대적 변화에 상응하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포착하고 있다. 이 변화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한국의 대중소설을 설명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본고는 구체적 작업의 일환으로 1950년대의 『자유부인』, 1960년대의 『서울은 만원이다』, 1970년대의 『영자의 전성시대』를 살펴보았다. 『자유부인』→『서울은 만원이다』→『영자의 전성시대』는, 노출-은폐의 측면에서 볼 때 도덕성의

노출·육체성의 은폐→근대화의 논리 노출·도덕성의 은폐→산업화의 결실
 노출·산업화의 폐단 은폐라는 구도를 보여준다. 이에 대한 피지배집단의 저항도, 지배계급 또한 은폐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제시→지배계급에 대한 개인적 힐난→지배계급에 대한 집단적 저항이라는 변화의 양상을 띤다. 따라서, 대중소설의 구조는 대중을 이데올로기적 내용에 동화시키고 이데올로기적 내용을 보급시키기에 적절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³¹⁾는 진술은 반만 진실이다.

이 작업을 더욱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배계급의 노출-은폐 전략에 대해 본격문학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살펴야 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지적하듯 이 시기에는 모더니즘 소설이 유행하고, 리얼리즘 소설마저 관념화·단편화되는 상황이었다면, 당대 지배계급의 노출-은폐 전략에 정면으로 반응한 대중소설은 본격문학이 성취하지 못한 것을 대중의 이름으로 이루어낸 훌륭한 성과물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선아, 「1930년대 대중소설의 양상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94.
 김동윤, 「1950年代 新聞小說 研究」, 제주대 박사논문, 1999.
 김지영, 「정비석 초기연애소설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99.
 김창식, 『대중문학을 넘어서』, 청동거울, 200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엮음, 『대중문학과 대중문화』, 아세아문화사, 2000.
 박명진 외 편역, 『문화, 일상, 대중:문화에 관한 8개의 탐구』, 한나래, 1996.
 양건열, 『비판적 대중문화론』, 현대미학사, 1997.
 이미향, 「일제 강점기 애정갈등형 대중소설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1998.
 이은자, 「연애소설」, 김중현 외, 『대중문학의 이해』, 청예원, 1999.
 이정옥, 『1930년대 한국 대중소설의 이해』, 국학자료원, 2000.
 이호철, 『서울은 만원이다』, 동서문화사, 1987.

31) 양건열, 『비판적 대중문화론』(현대미학사, 1997), 173쪽.

- 조명기, 『「자유부인」 연구』, 『우암어문논집』 8집, 부산외국어대 국어국문학과, 1997.
- 조선작, 『영자의 전성시대』, 『조선작 문학선』 1, 일선출판사, 1987.
- 조성면 편, 『한국 근대대중소설 비평』, 태학사, 1997.
- 황순재, 『말전범의 비평』, 토마토, 1998.
- 아놀드 하우스(황지우 역), 『예술사의 철학』, 돌베개, 1983.
- 알랑 스윙우드(김영수 옮김), 『대중문화의 신화』, 현암사, 1984.
- 안토니오 그람시(로마 그람시 연구소 편, 조형준 옮김), 『그람시와 함께 읽는 문화』, 새물결, 1992.
- 덕 헵디지(이동연 역), 『하위문화』, 현실문화연구, 1998.
- T. W. 아도르노(홍승용 역), 『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93.

<Abstract>

An Essay to find a research direction of the general popular novel

Cho, Myung-gi

The popular novel is cultural, social products of the present age. It needs to consider concrete contents of the contemporary rule ideology and resistance ideology to research the popular novel. It means the popular culture theory of Western Europe is not a full investigation to research Korea popular novel. The existing study is satisfied with popular culture theory of Western Europe pour into the Korea popular novel. So it couldn't b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popular novel. A critical mind of this manuscript is started. It connects making original analytical research formality to research popular novel.

This experimental discussion make clear exposure-concealment structure which is regulated by governmental power and capitalism ideology transcendently. The ruling class couldn't make this structure to be generalize just like ordinary form. A crude slogan forced to the popular. But the popular don't accept this opposition uncritically. The popular's resistance ideology reverse exposure-concealment structure which is made by ruling class. This reversion or the resistance aspect seems to change to aspect of the times.